



(이용규)

“타석에 서면 반드시 출루한다”... 돌아온 악바리 이용규

“호랑이 KS직행 내게 맡겨”

V10을 향한 ‘악바리’ 이용규의 꿈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이용규는 시즌 전 팀의 우승 그리고 최다안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장타력을 키우기 위해 겨울내 웨이트에도 신경쓰며 2009시즌을 향한 만반의 준비를 했었다.

하지만 야심차게 2009년을 준비했던 이용규의 앞 길을 부상이 막았다. 이용규는 4월7일 SK와의 홈경기에서 수비 도중 복숭아뼈 골절을 당해 개막 3경기 만에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태어나 처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이용규는 힘든 재활의 시간을 보낸 끝에 7월18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다시 방향미를 들었다.

이용규는 아직 부상 부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비는 100% 소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복귀 후 여전히 타격감각과 공격적인 플레이로 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지난주말 SK전 싸움이 3연승에는 이용규의 보이지 않는 활약이 있었다. 나지완의 대타 만루홈런포가 터졌던 21일 이용규는 약착같은 플레이로 자신의 진가를 재확인시켰다. 이날 5번 타석에 들어선 이용규의 기록은 3타수 1안타. 하지만 기록상에 들어가지 않은 이용규 특유의 끈기는 팀 승리의 발판이 됐다.

첫 타석에서 중견수 플라리로 물러났던 이용규는 두 번째 타석에서 SK 선발 카도쿠라를 상대로 10구까지 가는 신경전을 벌인 끝에 안타를 뽑아냈다. 8회 선두타자로 나온 이용규는 두 번째 투수 이승호에게 10개의 공을 던지게 한 끝에 볼넷을 얻어 출루했다. 이용규의 끈질긴 승부에 흔들린 이승호는 이후 볼넷을 2개 더 허용했고, 결국 나지완에게 대타 만루홈런을 맞으며 무너졌다.

공 하나 하나에 끈질긴 승부
상대팀 투수 집중력 흐트러
공격적 플레이 팀 승리 기여

지난 9일 김원섭의 끝내기 역전 만루홈런으로 승리를 거뒀던 군산경기에서도 이용규는 침착하게 볼넷을 골라내 만루를 만들어 끝내기 홈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었다.

본인 스스로 “타석에 나와 같은 타자가 서있다고 생각하면 무척 까다롭고, 짜증날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이용규는

상대 투수들에게 홈런 타자 못지 않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용규는 ‘반드시 출루한다’는 생각으로 타석에 선다. 그만큼 공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매 타석에서 끈기있는 승부를 펼친다. 공격적인 주루플레이도 이용규를 대표한다. 이용규는 “실수 때문에 좋지 않을 결과가 나오면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 얻은 결과라면 위축되지 않고 다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

지난해 ‘용규 타이거즈’라고 불릴 정도로 이용규 홀로 고군분투하며 힘든 4강 싸움을 했던 팀은 탄탄한 전력을 앞세워 1위를 지키고 있다.

부상으로 개인의 목표는 접어야 했지만 꼭 이루고 싶은 팀 우승을 위한 전진을 하고 있는 만큼 이용규에게 2009년은 아주 특별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3안타 몰아치기

타율 3할 진입 눈앞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3안타를 때리며 안타 몰아치기를 다시 시작했다.

추신수는 25일(한국시간) 캔자스시티 카우보이스스타디움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방문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 5번 타석에 들어서 3루타 1개와 단타 2개를 치고 2득점도 올렸다.

타율은 0.294에서 0.297로 올라가 다시 3할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1회초 중견수 뜰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0-0으로 맞선 4회 무사 1루에서 캔자스시티 선발 투수 길 메시의 시속 126km짜리 느린 커브공을 받아쳤다.

타구는 1루수 빌리 버틀러의 글러브를 맞고 굴절돼 우전 안타로 연결됐고 이어 트레비스 해프너의 홈런이 터지면서 추신수는 홈을 밟았다. 추신수는 3-4로 뒤진 6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메시의 높은 포심 패스트볼(시속 150km)을 밀어 쳐 좌중간 펜스를 맞쳤다. 추신수는 빠른 발을 이용해 3루까지 뛰어갔다.

해프너가 또 적시 2루타를 치면서 추신수는 시즌 71번째 득점을 올렸다.

/연합뉴스

청소년 야구 6년만에 우승 도전

아시아 선수권대회 개막

한국 청소년 야구 대표팀이 제8회 아시아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6년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일본·대만·중국·태국·스리랑카 아시아 6개국이 참가하는 아시아 청소년야구 선수권대회가 25일 목동구장에서 개막했다.

아시아야구연맹(BFA)의 주최로 2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2005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되며 2개조(A조·한국·일본·대만, B조·중국·태국·스리랑카)로 나누어 예선을 치른 후 결선 라운드에서 우승

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규정에 따라 9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연장 10회부터 승부차기가 도입되며, 결승전은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다. 우천으로 경기 일정이 순연될 경우에 대비해 30일이 예비일로 편성됐다.

2003년 대회 우승 이후 2005·2007 준우승에 머물렀던 한국 청소년 대표팀은 지난 16일부터 강화 훈련을 갖고 6년만의 우승 탈환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출신으로는 광주일고의 강민국(내야수)과 광주동성고 유경국(투수)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상승세 위성미, LPGA 첫 정상 도전

28일 세이프웨이클래식 출전

미국과 유럽의 여자프로골프 대항전인 2009 솔하임컵에서 미국의 3회 연속 우승의 주역이 된 제미교포 위성미(20·나이키골프)가 상승세를 살려 투어 첫 정상에 도전한다.

위성미는 28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미국 오리건주 노스플레인스 컴킨리지 골프장(파 72·6천397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세이프웨이클래식에 출전한다. 올해 13개 대회에 나와 시즌 첫 대회였던 2월 SBS오픈에서 단독 2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인 위성미는 24일 끝난 솔하임컵에서 미국 대표 가운데 가장 많은 3.5점을 따내며 맹활약했다. 베테랑 줄리 잉스터(미국)가 “올해 안으로 위성미가 우승할 것이란데 큰 걸을 수 도 있다”고 말했고 AP

통신 역시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보기를 원했던 위성미의 모습”이라고 칭찬했을 정도로 솔하임컵에서 위성미의 활약은 눈부셨다.

L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진행 중인 세이프웨이 클래식 우승자 예상 설문 조사에서도 위성미는 25일 오전 현재 무려 49%의 지지를 받아 플라 크리머(15%·미국), 로레나 오초아(14%·멕시코)를 밀쳐 감지 따돌리고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올해부터 LPGA 정회원 자격을 얻은 위성미는 몇 해 전부터 초청 선수 자격으로 투어에 출전해왔지만 아직 투어에서 우승 경험이 없다. 올해 6승을 합작한 신지에·지은희 등 ‘한국 남자’들도 3주간 휴식기를 갖고 재개되는 후반기 레이스에서 우승컵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

우즈
리턴매치
양용은

내일 개막 PGA 바클레이스서 격돌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꺾고 아시아 남자 최초로 메이저골프대회를 제패한 감동이 새겨졌지만 대결은 계속된다.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27일(이하 한국시간) 저녁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 리버티 내셔널 골프장에서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시리즈 중 첫번째 대회 바클레이스에 출전, 다시 우즈와 맞붙는다.

양용은이 2주전 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누구도 꺾지 못할 것 같았던 우즈에 역전승을 거둬 최대의 이변을 일으켰지만 올 시즌 그의 기록들을 보면 결코 깜짝 우승이 아니다. 25일 대회가 열리는 저지시티에 도착한 양용은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까지 바라지 않는다. 지금 페덱스컵 랭킹이 7위이기 때문에 톱10을 유지한 뒤 마지막 대회(투어 챔피언십)에서 승부를 내겠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

▲비쁜 일정 보낸 양용은. 샷 감각 회복이 급선무 = 양용은은 지난 해부터 흑그립을 스쿼어 그립으로 바꾼 뒤 아이언샷과 웨지샷의 정확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다. 양용은의 그린 적중률은 67.6%로 PGA 투어 선수 중 31위에 올라있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50야드 이내에서 치는 아이언샷이나 웨지샷의 정확도는 더 뛰어나다. 하지만 양용은은 PGA챔피언십 우승 이후 각종 인터뷰와 행사에 참석하느라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메이저대회 챔피언으로서 유명세를 치른 양용은은 연습 라운드에서 샷 감각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다.

▲절치부심 우즈. 명예회복 노린다 = 양용은에게 패하면서 PGA챔피언십 우승컵을 넘겨 준 우즈는 미국 폭스 TV에 출연해 “마지막 라운드가 끝난 날 잠을 설치다”고 말했다. 올 시즌을 메이저대회 우승컵 없이 보내게 된 우즈는 원년챔피언십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25일 절친한 친구 노타 비게이 3세가 주최한 자신 스킨스 게임에 참가해 기분을 풀었다. 카밀로 비에가스(콜롬비아), 마이크 웨어(캐나다) 등도 참가한 이 대회에서 우즈는 23만달러의 스킨을 따내며 우승했다. 우즈가 큰 대회를 앞두고 자신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우즈가 스킨스게임에 참가한 것은 2005년 이후 4년만이다. 2007년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한 우즈가 2년만에 정상에 복귀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배우 할 통합니다 2. 깨우치니 3. 귀가 밝아집니다

국제보청기

www.kihr.com

본점 (062) 227-9940
광주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